

# 전공의 1년차가 알아야 할 흉부 사진

조 석 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이름으로 환자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도 환자 흉부 사진을 보면 얼굴이 생각날 정도로 흉부외과 의사에게 흉부사진은 매우 익숙하다. 익숙한 만큼 확실히 알면 환자의 얼굴 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단순 흉부 사진과 CT에서 확인해야 하는 구조물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각각의 흔한 질환에서 접할 수 있는 흉부 사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폐암을 예로 들면, 단순 흉부사진에서 종괴의 위치와 동반된 폐 허탈, 폐렴, 흉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과거 사진과 비교해서 종괴의 성장 속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흉부 CT에서는 종괴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fissure의 주행과 기관지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분엽 단위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또한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 및 침범 여부도 확인하고, 커져 있는 종격동 임파선이 있는 경우 정확한 임파선 번호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수술 전 검사들을 확인할 때, 습관적으로 판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시행한 검사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판독을 한 뒤에 정식 판독과 비교를 통해서 본인만의 내공을 키울 수 있다. 특히 기관지 내시경, 식도 내시경, 다른 intervention등의 결과는 직접 사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위치, 시행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확인한 구조물들이 수술 필드에서는 어떻게 매칭되는지 매번 피드백을 하게 되면 같은 영상의 다른 환자가 왔을 때 수술 가능여부,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전공의 1년차는 일과 중에 많은 부분을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 사진을 판독하고 추가 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흉부 엑스레이를 정확히 판독할 줄 알아야 하며, 의심되는 질환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수교육을 통해서 응급실과 수술 후 병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과 합병증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단순 흉부 사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병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적

절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순 흉부사진에서의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1. 이상 공기 음영 :

정상적인 단순 흉부사진에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공기 음영

➔ 기흉, 거대 낭종, 종격동 기종, 횡격막 파열, 식도파열 등의 임상 소견과 단순 흉부 사진 소견을 확인해 본다.

2. 이상 흉수 음영 :

정상적인 단순 흉부사진에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흉수와 수술 후 예상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흉수

➔ 기흉이 동반된 혈흉, 전폐절제술 후 흉수 변화, 수술 후 혈흉, 유미흉 등의 임상 소견과 단순 흉부사진 소견을 확인해 본다.

3. 폐허탈 또는 염증을 시사하는 음영:

수술 후 정상적인 폐 팽창을 보이지 않고 폐 허탈과 폐렴을 시사하는 단순 흉부사진 소견을 이해하고 원인에 대해서 알아본다.

➔ 단순 폐 허탈, 수술 후 lobar torsion, 수술 후 폐렴

상기 이상 소견들에 대한 임상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수술 방법과 수술 후 변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술 후 수술 과정에 참여하였던 집도의, 선배 전공의들과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예측되는 흉부 사진 이상 소견 등에 대한 토의가 매우 중요합니다.